

엘로스톤 독서 활동지 <코코와 아기 양말>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교과 성취기준 연계 (해당 학년 · 과목 · 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4학년 국어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 5, 6학년 국어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교사 및 양육자용

버려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영화 <토이 스토리>의 장난감들은 자신들을 그토록 아끼다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점점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며 슬퍼했지요. 서글퍼하고 슬퍼하기만 했으면 이 영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걸작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지는 것, 버려지는 것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코코와 아기 양말》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겨울이지만, 작품 전체는 무척이나 따스한 느낌을 줍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선인장 코코의 생일인 하루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은 뜻밖의 일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눈이 내린 거리를 지나가지요. 아기가 총총 걸어가다 양말이 벗겨지고 맙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기는 떠나 버리고, 홀로 남겨진 아기 양말이 차가운 눈 속에서 울고만 있지요.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마음이 유난히 따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코코와 아기 양말》 이야기 속 할머니 같은 분들이지요. 매섭도록 추운 날, 종종걸음으로 걸어가기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울고 있는 아기 양말을 주워, 집에 소중히 데려옵니다. 어른 양말이었으면 할머니가 신었을 테지만 너무 작아 그럴 수도 없었고요. 마침 오늘은 선인장 코코의 생일이잖아요! 뜨거운 사막에서 태어난 선인장 코코의 소원은 바로 눈을 보는 것! 할머니가 깨끗이 빨아준 아기 양말은 결국, 선인장 코코의 모자가 되지요.

이야기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닐까요.

김여진(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 서울상신초 교사)

- 교실에서 그림책으로 세상과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입니다. 또한, 글을 쓰고 그림책 번역을 합니다.
- 창작이 일상을 지태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 ❖❖ <피땀눈물, 초등교사>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을 썼습니다.
- ❖❖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나는 () 사람이에요> <달팽이 헨리> 등을 번역했습니다.

* 책을 읽기 전에 *

미션 1 : 표지 꼼꼼히 살피기

어린이용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코코는 누구의
이름일까요?

어떤 계절의
이야기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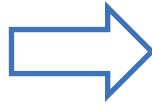
할머니는 화분을
안고 있어요.
무슨 식물인가요?

미션 2 : 주인 잃은 물건도 버리지 마!

어린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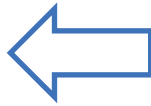
버려진 아기 양말은 짝이 맞지 않으니 버려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끗하게 아기 양말을 빨아서 간직하였다가, 선인장 코코의 머리에 씌워주셨지요.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 잃은 물건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 그 물건을 쓰면 좋을까요?

1.
버려진
아기 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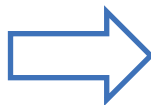


선인장 코코의
따뜻한 모자

2.



3.



미션 3 : 등장인물의 성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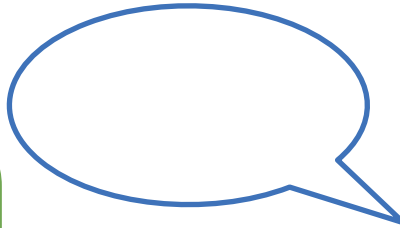
할머니,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코코의 성격 :

그렇게 생각한 까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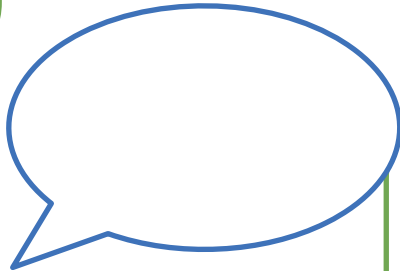
할머니의 성격 :

그렇게 생각한 까닭 :



아기양말의 성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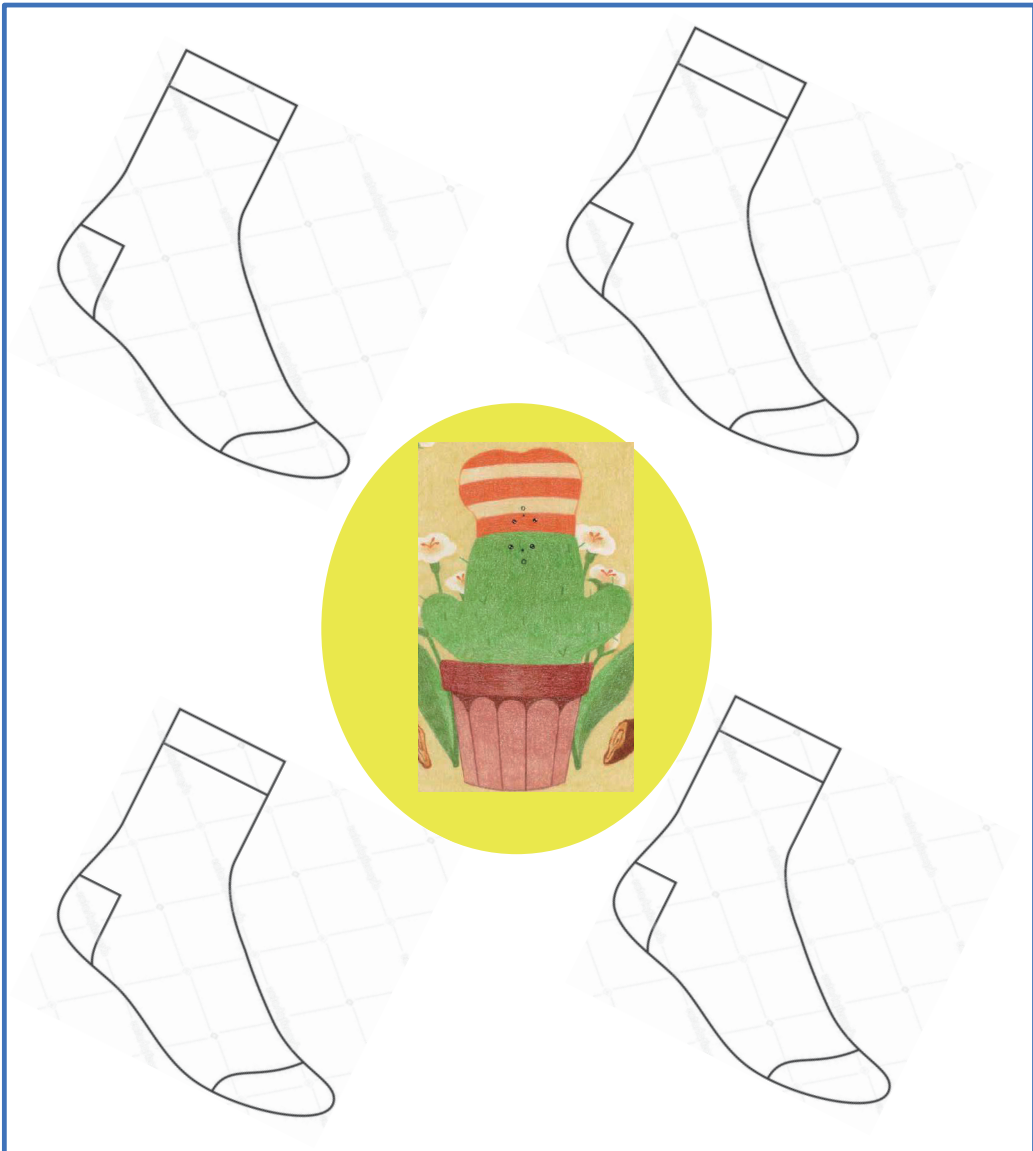
그렇게 생각한 까닭 :



미션 4 : 선인장 코코가 쓸 양말 디자인하기

선인장 코코도 날마다 다른 양말을 머리에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코코에 어울리면서 개성 넘치는 아기자기 예쁜 양말을 디자인해 주세요!

(예시) 해님 양말
특징 : 해처럼 노랑고 빨간 양말, 뒤집어쓰면 포근해져요.



* 책을 읽은 후 *

미션 5 : 난 이 장면이 좋아, 왜냐하면...

어린이용

그림책을 읽으며 느낀 점도 있었을 테고, 인상적인 장면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골라 아래의 칸에 따라 그리고, 문장도 적어 봅시다. 그 까닭도 써 보세요.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5가지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타인을 위하는 따스한 마음,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길을 걸어나다보면 주인 잃은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버려진 물건들의 대다수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지요. 하지만 눈 밝은 사람이 있어준다면, 그 쓸모없어질 뻔한 물건들도 자신의 몫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닌 할머니와, 사랑스러운 선인장 코코, 이대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아기 양말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 속에서 따스함을 느껴 보세요!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 버려진 물건들을 떠올려 볼 때
- + 다양한 양말을 디자인해 보고 싶을 때
- + 차가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 + 타인을 돕는 마음을 지니고 싶을 때
- +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해 볼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며 내용을 예측하고, 장면을 상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표지의 장면에서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상상의 제한없이 마음껏 이야기의 전개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대화해 주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주인 잃은 물건도 버리지 마!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물론, 잃어버린 물건이 외롭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테고요. 짝이 없는 물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물건들이 원래 용도와는 다르지만 새로운 할 일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잃어버려 보았거나 사람들이 자주 잃어버린 물건을 골라 적고, 그 물건의 새로운 할 일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5가지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등장인물의 성격은?

아이들은 종종, 작품 속의 ‘사람’ 만을 ‘등장인물’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나 동물 또한 작품에서는 ‘등장인물’ 이라고 일컫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그림책 속 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말 한 마디를 골라 적어봅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보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4 : 선인장 코코가 쓸 양말 디자인하기

따뜻하고 사려깊은 할머니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아기양말은 주인을 잃어도, 자기 역할을 특특이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선인장 코코의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을 새로이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활동에서는 선인장 코코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양말을 다양하게 디자인해 보고자 합니다.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는 물론이고 색종이나 반짇이 등도 사용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난 후

미션 5: 난 이 장면이 좋아, 왜냐하면...

작품을 가장 온전히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리내어 읽어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연극으로 표현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작품을 읽어도 사람마다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을 제각기 다를 거예요. 아기 양말이 버려지고 슬퍼하는 장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책을 읽고 난 후